광주 곳곳서 설·정월대보름 전통행사 한마당

역사민속박물관·과학관서 떡메치기·공예체험·전통공연 풍성
고싸움놀이·당산제·지신밟기 등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가득
체험프로그램부터 지역축제까지 명절 내내 즐길거리 총집합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시풍속과 전통·문화 행사를 광주 곳곳에서 다채롭게 선보인다.

설 명절 기간에는 박물관과 과학관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체험행사가 이어지고,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는 고싸움놀이축제와 당산제, 지신밟기 등 전통을 잇는 민속행사가 잇따라 열려 도심 전반에 명절 분위기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 설 명절 맞아 박물관·과학관서 즐기는 전통과 체험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17일부터 18일까지 '2026 설맞이 한마당' 행사를 열고, 세시풍속을 주제로 한 공예체험과 전통악기 퓨전 공연 등을 통해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가야금·대금·피리 등 전통 악기의 선율에 현대적 감성을 더한 퓨전 국악 공연과 국악 오리지널사운드트랙 메들리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무대로 운영된다.

관람객들은 ▲복 노리개 ▲자개 손거울 ▲소원키링 만들기 등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설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마한유적체험관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나눔 행사가 열린다. 야외마당에서 열리는 투호,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는 체험관을 찾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 '2026년 설맞이 우리 문화 한마당'을 운영한다. 14일에는 어린이 뮤지컬 '백설공주'를 공연하며, 행사 기간 마패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설 당일인 17일을 제외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설레는 과학놀이 한마당'을 진행한다. 사물놀이와 케이팝(K-POP) 탈춤 공연을 비롯해 ▲떡메치기 ▲훈장님과 전통놀이 ▲함판 승부 ▲전통악기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한복을 입고 방문한 관람객에게 특별전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복 입고 과학관 나들이' 이벤트와 국립광주과학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해 소망을 남기면 선물을 증정하는 '새해 소망 한마디' 이벤트도 18일까지 진행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4일부터 18일까지 '설날은 ACC와 함께'를 진행하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튜브를 통해 2023~20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창·제작 공연작품을 상영한다.

◇ 정월대보름 맞아 전통놀이·지역축제 잇따라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놀이와 지역축제도 이어진다.

광주의 대표 지역축제인 제43회 고싸움놀이 축제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남구 고싸움놀이테마공원에서 열린다. 고싸움놀이 시연을 비롯해 대보름 전래놀이 체험, 고샅고싸움놀이 체험, 줄타기 공연, 달집 태우기, 대동단심줄놀이 등 웅장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당산제와 지신밟기 등도 광주 곳곳에서 진행된다.

2월28일 용봉동 새봄어린이공원에서 지신밟기, 판굿 등이 펼쳐진다. 3월2일에는 계림초등학교와 계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월대보름 풍물패 지신밟기가 열리며, 지산2동 사랑채 일원과 덕흥동 덕흥공원 느티나무 앞에서 풍물놀이와 당산제가 펼쳐진다. 3월2일에는 충효마을 느티나무에서 당산제가, 문흥동 느티나무공원에서도 당산제와 오곡밥나무 등의 행사가 열린다. 3월3일에는 풍암동 당산어린이공원에서 풍물놀이와 당산제가 이어진다. 원삼각마을 주차장에서는 윷놀이,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 체험을 비롯해 대보름 풍물굿 등이 펼쳐진다.

또 3월3일 국립광주과학관 별빛천문대에서 '특별천문행사 정월대보름 개기월식' 행사가 열려 시민들이 야간 천체 관측을 통해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다.

신신하 문화정책관은 "설 명절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광주를 찾는 시민과 귀성객이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광주 곳곳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화행사 일정과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과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기자

설 연휴 추천 여행지,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설 당일(17일) 제외 14~18일 정상 운영, 원화전시·체험 마련

순천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이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림책도서관은 설 당일인 17일을 제외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자료실과 원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은 현재 제31회 그림책 원화전시 「이우만, 새를 만나고 그리다」를 운영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생태 세밀화가이자 그림책 작가인 이우만 작가가 우리 주변의 새를 관찰하며 그린 작품 16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해설(도슨트)은 하루 2회(13시, 15시) 운영하며, 전시 작품 「청딱따구리의 선물」을 활용한 샌드아트 영상도 하루 2회(14시, 16시) 상영해 더욱 특별하고 풍성한 관람 경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도서관 야외 공간에서는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 체험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명절 분위기를 더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에 도서관에서 독서와 전시 관람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이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품은 순천의 매력을 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양꿈빛도서관, 어린이 무용 동화극 「미운 오리의 꿈」 공연

자존감과 공감의 가치를 전하는 가족 공감 공연

광양꿈빛도서관은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어린이 무용 동화극 「미운 오리의 꿈」을 오는 2월 24일, 도서관에서 어린이와 가족 관객을 대상으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다른 색을 가졌다는 이유로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기 오리가 자신만의 특별함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특별함'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미운 오리의 꿈」은 대사 위주의 연극이 아닌 무용 동화극 형식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이 몸의 움직임과 음악, 이미지 등을 통해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무대 위 배우들의 섬세한 움직임과 따뜻한 음악, 동화적인 연출이 어우러져 어린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자존감과 공감의 가치를, 함께 관람하는 가족에게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감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 관람은 어린이와 가족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은 2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꿈빛도서관(☎061-797-395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국악으로 여는 문화 일상, 2026 국악문화학교

2026 국립남도국악원,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악의 일상적 향유를 촉진하고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 국악문화학교』를 운영한다.

'2026 국악문화학교'는 오는 4월 2일(목)부터 10월 29일(목)까지 진행되며, 국립남도국악원 단원들이 직접 강사진으로 참여해 국악 실기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은 가야금, 아쟁, 해금, 대금, 사물놀이, 민요·판소리, 한국무용 등 총 7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총 25회 운영될 예정이며, 과목별 모집 인원은 15명(아쟁 10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는 청소년 50,000원, 일반인 100,000원으로 가족이 함께 수강하는 경우,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수강 신청은 2월 23일(월) 오전 10시부터 2월 27일(금)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jindo.gugak.go.kr)을 참고하거나 장악과(061-540-4037)로 문의하면 된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